

독점적 우위가 기업의 해외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

Monopolistic Advantages and Firm Performance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李 章 鎬**

논문 초록

최근에 국내외 경영환경의 변화로 한국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별기업의 차원에서 우리나라 제조업해외직접투자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식별과 그 상대적 중요성의 검증을 시도한다. 연구결과는 투자대상국을 개도국으로 선정하는 것과 높은 R&D 집약도, 그리고 현지생산증가율이 높은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해외투자의 성공에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I. 序 論

1961년에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이후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하였다. 한국경제는 1970년부터 1990년 사이에 규모가 30배로 늘어나 GNP가 U\$ 2,380억에 달했으며 수출은 80배가 늘어난 U\$ 630억에 달해 세계 제12위의 輸出國이 되었다.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국내시장이 협소한 한국은 지난 30년간 수출 지향적 경제성장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경제여건의 악화, 선진국시장에서의 보호주의확산, 세계경제의 불력화, 사회주의경제의 몰락 내지는 개방화 등으로 한국기업들의 해외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 이제 더이상 해외투자수입국에 머무르고 있지 않으며 서서히 해외투자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 이 논문은 1991년도 교육부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西江大學校 經營大學 經營學科 副教授

1986-1989년 기간중의 국제수지 흑자와 계속되는 국내임금상승, 원화가치의 변동 등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II. 海外直接投資動向

1990년말 한국기업에 의한 총 해외직접투자건수는 1,234건이며 금액으로는 약 23억불에 이른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과거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2년간 그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표 2-1> 해외직접투자동향

(단위 : 백만U\$)

	68-82	83	84	85	86	87	88	89	90
건 수	458	60	46	40	50	91	165	254	368
금 액	338	113	157	118	172	397	213	492	1,020

자료 : Korean Investment Overseas, May 1991 (Seoul, The Bank of Korea), p.4.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최근에 급증한 이유는 1986년부터 1989년까지 4년간 한국의 국제수지가 흑자를 나타냈고, 1987년 이후 한국정치의 민주화가 급속히 진전되자 그동안 비민주적 제도 아래서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요구가 임금수준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나타나고, 노동쟁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산업전반에 걸쳐 비용증가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한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제조업, 광업, 무역업, 임업, 건설업, 어업, 운송 및 보관업 등 여러 산업에 걸쳐 있다. <표 2-2>는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 현황을 보여준다.

1991년 3월말 현재 제조업 해외직접투자는 U\$ 1,178백만이다. 이러한 금액은 개발국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규모에 비하면 소규모에 불과하나 한국의 경제규모, 동원가능한 자원, 경제개발 상태를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표 2-2>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1991년 3월말 현재)

(단위 : 백만U\$)

	광업	제조업	무역업	임업	건설업	어업	운송·보관	기타
건수 (%)	21 (1.6)	566 (41.9)	477 (35.3)	11 (0.8)	61 (4.5)	50 (3.7)	39 (2.9)	125 (9.3)
금액 (%)	468 (18.1)	1,178 (45.7)	474 (18.4)	77 (3.0)	52 (2.0)	93 (3.6)	9 (0.3)	228 (8.8)

자료 : Korean Investment Overseas, May 1991(Seoul, The Bank of Korea), p.5.

해외직접투자를 지역별로 보면 <표 2-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수출품의 최대시장인 北美와 한국의 가공산업이 필요로하는 노동과 자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럽, 중남미, 대양주 등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지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1992년이 가까워옴에 따라 유럽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늘고 있다.

<표 2-3> 해외직접투자의 지역별 분포
(1991년 3월말 현재)

(단위 : 백만U\$)

	북미	동남아	유럽	중남미	대양주	중동	아프리카
건수 (%)	416 (30.8)	588 (43.6)	108 (8.0)	112 (8.3)	66 (4.9)	33 (2.4)	27 (2.0)
금액 (%)	1,189 (46.1)	839 (32.5)	177 (6.9)	128 (5.0)	142 (5.5)	57 (2.2)	47 (1.8)

자료 : Korean Investment Overseas, May 1991(Seoul, The Bank of Korea), p. 6.

해외직접투자의 대부분은 대기업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으며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1991년 3월말 총 해외직접투자건수의 58.2%, 총 해외직접투자금액의 86.6%를 차지한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규모는 영세하며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직접투자의 약 73%가 U\$1백만 미만의 규모이다.

한국기업은 해외직접투자를 함에 있어 합작투자보다는 100%소유 자회사를 선호한다.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직접투자의 58%가 100%소유 단독투자 형태이며, 한국기업이 다수지분을 가지는 투자를 포함하면 약 74%가 된다. 한국기업의 지분이 50%미만인 해외직접투자는 18%이며 한국기업의 소유지분이 20%미만인 해외직접투자는 3%에 불과하다.

한국기업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를 산업별로 보면 한국기업들은 자동차, 전자, 화학, 철강, 선박, 시멘트, 의류, 종이, 합판, 모터, 디젤엔진 등 다양한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표 2-6>은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지역별 분포를 보여준다.

<표 2-4> 규모별 해외직접투자
(1990년말 현재)

(단위 : 백만U\$)

규모 / 년도	백만불이하		1백만불초과 2백만불이하		2백만불초과 5백만불이하		5백만불초과 1천만불이하		1천만불초과		총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81	288	51	16	24	7	21	8	54	2	23	321	173
1982	308	59	19	26	14	46	6	38	5	120	352	289
1983	346	66	23	31	18	63	9	58	5	169	401	387
1984	373	85	26	37	13	42	13	71	7	210	432	445
1985	374	87	32	45	20	65	11	71	6	209	443	477
1986	395	94	34	48	25	81	10	65	11	346	475	634
1987	433	89	45	63	31	99	13	84	12	632	534	967
1988	549	150	46	65	44	147	16	105	13	653	668	1,120
1989	701	214	88	124	69	222	23	147	18	736	899	1,443
1990	908	285	161	241	108	351	29	197	37	1,260	1,243	2,334

자료 : 한국은행 외환관리부, 「해외투자통계연보」, 1991, p. 40.

<표 2-5> 지분별 해외직접투자
(1990년말 현재)

(단위 : 백만U\$)

구 모 / 년 도	20 % 미 만		20% 이상 50% 미만		50%		50% 이상 100% 미만		100% 소유		총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81	9	5	48	19	27	27	27	23	210	98	321	172
1982	8	4	55	26	34	31	31	25	224	204	352	290
1983	9	3	70	38	32	29	40	44	250	272	401	386
1984	10	7	79	50	32	30	43	49	268	309	432	445
1985	15	9	81	66	30	23	44	57	273	321	443	476
1986	18	21	80	134	27	22	51	92	299	364	475	633
1987	15	38	85	232	33	26	55	199	346	470	534	965
1988	21	42	103	243	38	160	69	66	437	608	668	1,119
1989	23	45	145	223	59	188	120	137	552	850	899	1,443
1990	37	75	186	208	97	293	208	348	715	1,412	1,243	2,336

자료 : 한국은행 외환관리부, 「해외투자통계연보」, 1991, p. 41.

<표 2-6>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지역별 분표
(1990년말 현재)

(단위 : 백만U\$)

산업 / 지역	동남아		중 동		북 미		중남미		유 럽		아프리카		대양주		총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음식료업	8	55	2	0.6	8	13	2	0.5	1	0.1	-	-	1	1	22	70
섬유 및 의류	65	69	1	0.3	13	19	50	46	2	2	1	1	13	8	145	145
신발 및 가죽	34	40	-	-	6	7	4	4	-	-	-	-	-	-	44	51
나무 및 가구	14	11	-	-	4	16	-	-	-	-	-	-	1	0.5	19	28
종이, 인쇄 및 출판	3	1	-	-	6	16	-	-	1	0.3	-	-	-	-	10	17
화학, 석유, 석탄	37	59	2	13	11	32	3	2	3	27	2	8	-	-	58	141
고무 및 플라스틱	-	-	-	-	-	-	-	-	-	-	-	-	-	-	-	-
비금속 광물	14	36	1	2	2	2	-	-	-	-	2	0.3	1	0.2	20	41
기초금속	5	4	1	2	4	240	-	-	-	-	1	0.3	-	-	11	246
조립금속 제품,	60	69	-	-	25	182	1	0.01	17	36	2	1	2	0.6	107	289
기계 및 설비	-	-	-	-	-	-	-	-	-	-	-	-	-	-	-	-
기타 제조업	55	30	-	-	3	2	1	0.5	2	2	1	0.4	2	0.1	64	34
총 계	295	374	7	17	82	529	61	53	26	67	9	11	20	11	500	1,062

자료 : 한국은행 외환관리부, 「해외투자통계연보」, 1991, pp. 50-51.

Ⅲ. 研究目的 및 必要性

과거 오랫동안 국제수지적자에 시달려온 한국경제는 저유가, 저금리, 저원화가치라는 소위 “3저효과”에 힘입어 1986년부터 국제수지흑자를 시현한 바 있으며 1986-1988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실질소득증가율이 12%를 상회하는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한국경제는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 노사분규, 신보호무역주의, 선진국으로부터의 시장개방압력 등 국내외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 결과 경제성장은 둔화되었으며 국제수지 역시 적자로 반전되었다. 수출은 물량기준으로 제자리걸음을 하였고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후발개도국의 추격은 다급하다. 한국의 주종 수출품목인 전자제품, 완구, 섬유등은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으나 새로운 제품의 개발은 늦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와같은 국제경쟁력의 저하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많은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에 나서고 있다. 물론 해외직접투자가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다. 해외직접투자는 수출, 라이선싱, 프랜차이징, 생산물 분배, 국제 컨트랙팅 등과 더불어 기업이 택할 수 있는 해외진출전략의 하나이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는 아무 기업이나 자금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자금이 있다고 해외직접투자를 한다면 과거의 해외직접투자의 대부분이 산유국에 의하여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다. 해외직접투자에 성공하려면 기업특유의 이점, 즉 독점적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만약에 기업특유의 이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해외직접투자에 나선다면 현지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에 나서고 있으나 그중에 적지 않은 수의 기업들이 해외에서 고전하거나 철수하고 있다. 예를 들면 TV생산을 위해 미국에 공장을 세운 한국의 우수전자기업은 TV제조라인을 해체하여 멕시코로 이전하고 그곳에서 전자오븐을 생산하고 있다. 만약에 많은 수의 한국기업들이 해외생산에서 실패한다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며 몇몇 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의 실패로 도산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같이 한국경제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 기업특유의 이점이 과연 해외직접투자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이와 관련한 독점적 자산의 상대적 중요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IV. 海外投資理論과 競爭優位

세계적으로 多國籍企業의 數, 특히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미국 다국적기업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자 다국적기업의 출현을 설명하려는 여러가지 이론들이 제시되었다 (Kim & Lyn 1990). Stephen Hymer(1960)가 30여년 전에 해외직접투자와 다국적기업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이후 해외직접투자와 다국적기업에 대한 연구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연구방향 역시 여러가지 형태를 취했으나 결국 모든 연구에서 다국적기업이 중심주제로 부각되고 있다[Calvet 1981]. Hymer의 독점적 우위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이론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다국적기업들은 現地國의 기업들에 비해 독점적 우위 내지는 기업특유의 利點(Duning 1977)을 획득 할 수 있는 불완전 경쟁시장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한다. Kindleberger(1970)도 Hymer의 주장에 따라 완전경쟁상황에서는 해외직접투자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보면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완전경쟁모델로부터의 일탈인 것이다. Hymer는 이러한 일탈을 주시하고 現地企業은 외국기업보다 현지의 경제적 환경에 대해 보다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외국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하고 해외경영에서 성공하려면 현지기업에 대해 그러한 不利點을 상쇄할 수 있는 이점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다국적기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국적기업이 보유하는 가장 중요한 경쟁우위는 기술(특허권에 의하여 보호받든 보호받지 않든지 간에)과 마케팅기법 등이라는데 일반적으로 의견이 일치한다. 실증연구결과 역시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R&D와 광고집약적인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들은 독점적 지대를 발생시키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Gruber et. al. 1967; Caves 1974). 기업의 규모 역시 기업의 多國籍性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Horst 1972). 기업의 평판과 그 기업이 보유하는 대규모자산 때문에 대규모기업의 海外子會社들은 외국에서 현지기업들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점적 우위 자체만으로는 왜 한 기업이 라이선싱이나 수출이 아니라 해외직접투자의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 Caves(1971)는 기업의 노하우가 언제나 그 기업 및 그 기업의 경영층과 무관하게 이전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출이나 라이선싱보다는 해외직접투자가 선호된다고 주장한다. Buckley와 Casson(1976)은 內部化(internalization)라는 개념을 제

시하여 不完全競爭이 기업으로 하여금 R&D, 종업원의 훈련 및 마케팅과 같은 경영활동들을 내 부화하도록 유도한다고 주장한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최근의 이론들(Hood & Young 1979; Dunning 1979)은 기업의 國際化를 설명하는데 현지국이 보유하는 장소특유의 이점(location-specific advantages)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장소특유의 이점들은 외국기업들을 특정한 국가로 유치하는 요소들로 간주된다. 장소 특유의 이점들의 例로는 무역장벽, 낮은 노무비, 원재료의 가용성, 현지시장의 규모와 성장율, 현지정부의 정책 등이 언급된다.

V. 研究方法 및 假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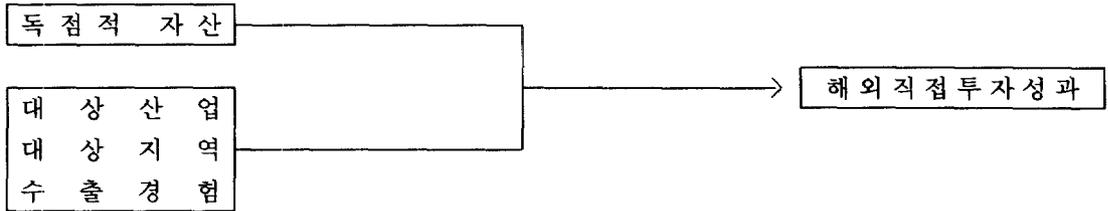
본 연구는 해외직접투자를 한 한국제조기업들을 표본으로 설문지조사와 면담조사의 방법을 통하여 해외직접투자의 성공이 독점적 자산의 함수인지 여부를 검증한다. 해외직접투자의 성공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해외자회사의 자기자본수익율이나 투자수익율, 또는 株價收益倍數(해외자회사가 공개법인일 경우)등이 해외자회사의 성공정도를 측정하는 재무지표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무지표들이 국제기업의 성공정도를 정확히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자회사의 재무지표는 국제기업의 移轉價格政策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국제기업은 특정한 자회사에 대한 원료나 부품, 완제품의 판매가격이나 구매가격을 조작함으로써 그 자회사의 利益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회사의 재무지표가 아니라 국제기업 본사의 경영자가 해외자회사에 대하여 느끼는 만족의 정도를 성공척도로 사용한다. 본 연구는 해외직접투자를 한 한국제조기업들을 표본으로 하여 해외직접투자의 성공이 독점적 자산의 함수인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의 성공에는 독점적 자산의 소유뿐만 아니라 투자대상산업, 기업의 수출경험, 투자대상지역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도 통제변수로서 통계적 분석에 반영하면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해외직접투자성과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다. 한 기업의 수출경험은 그 기업이 그 시장에 직접투자를 할 때 그 시장의 성격과 규모를 결

해외직접투자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를 함수로 표시하면,

$$\text{해외직접투자성과} = f(\text{독점적 자산, 통제변수들}) \text{이 된다.}$$

5.1 자료의 수집

본연구의 표본은 한국은행이 발간한 1990년 12월 31일자 해외투자현황에 등재되어 있고, 1989년 이전에 해외투자를 실시한 50개 제조기업의 82개 해외자회사이다. 표본기업들중에서 한 기업은 7개의 자회사를, 다른 두 기업은 6개의 자회사를, 또다른 두 기업은 4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었다. 자회사가 3개인 기업은 둘이고 자회사가 둘인 기업은 여섯개였다. 총 13개 기업이 하나 이상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1989년 이후에 해외투자한 기업들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해외투자역사가 너무 일천하면 성공여부를 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우선 연구대상기업에 전화를 걸고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협조를 부탁했다. 우리의 설명을 들은 기업 중에서 119개 기업이 연구참여에 동의했다. 연구참여에 동의한 기업에게 우편으로 또는 직접 방문하여 우리의 설문지를 전달하였다. 세차례에 걸친 전화독촉과 두차례에 걸친 tracer발송후 50개 기업들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산업의 성장율에 관한 자료는 UNIDO에서 발간한 Industry and Development Global Report와 UN에서 발간한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에서 구하였다. 또한 World Development Report의 분류에 따라 子會社所在國을 개발국(OECD국가)과 개발도상국(非 OECD국가)으로 구분했다.

5.2 통계분석

사용된 통계분석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독립변수 상호간의 관계와 독립변수와 해외투자성과간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相關分析을 실시한다.

둘째로 선형회귀분석모델을 사용하여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횡단분석을 실시하여 가설 검증을 시도한다. 이때 사용된 선형회귀분석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Y_i = b_0 + b_1X_{1i} + b_2X_{2i} + b_3X_{3i} + b_4X_{4i} + b_5X_{5i} + b_6X_{6i} + b_7X_{7i} + b_8X_{8i} + b_9X_{9i} + b_{10}X_{10i} + \epsilon_i$$

Y_i 는 종속변수이며 표본기업의 최고경영층이 해외자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느끼고 있는 만족도이다. X_1 는 순매출액에 대한 R & D지출비율(RD)이며 X_2 는 종업원중에서 과학자와 기술자가 차지하는 비율(SR)이다. X_3 는 순매출액에 대한 광고비지출비율(AD)이며 X_4 는 종업원평균 임금(WL)이다. X_5 는 순매출액에 대한 자산의 비율(CI)이며 X_6 는 순매출액의 logarithm으로 측정된 기업의 매출규모(SZ)이다. X_7 는 기업이 한 나라에 직접투자하기 전에 그 나라로 수출한 年數(ER)이며 X_8 는 산업생산의 연간세계평균성장율(GR1)이다. X_9 는 현지국에 있어서의 산업생산의 연간평균성장율(GR2)이며 X_{10} 는 해외직접투자수입국을 개발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는 더미(dummy)변수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종속변수와 더미변수, 그리고 ER을 제외하면 모두 1986-1988년의 3년평균 수치이다. <표 5-1>의 예상부호는 과거의 실증연구에서 발견되었거나 우리가 가정하는 부호를 나타낸다.

<표 5-1> 독립변수의 예상부호

독립변수	예상부호
RD	+
SR	+
AD	+
WL	+
CI	+
SZ	+
ER	+
GR1	+
GR2	+
D1(개발도상국)	+

5.3 변수

본 연구는 해외투자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점적 자산의 지표로 R&D 지출비율(RD), 광고비 지출수준(AD), 기업의 종업원중 과학자와 기술자의 비율(SR), 종업원의 평균임금수준(WL), 순매출액에 대한 자산의 비율(CI), 매출액규모(SZ)를 사용한다.

전통적으로 국제경영학자들은 개발국에서 과점적 산업구조를 출현시키는데 기여한 요인들을 사용하여 제조기업의 해외직접투자활동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산업조직론에 의하면 독점력의 정도가 클수록 이익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를 기업차원에서 보자면 어떤 기업이 평균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은 그 기업의 투자전략이 다른 기업들의 그것과 달랐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R&D는 핵심기술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Rumelt 1974) 시장세분화와 제품차별화의 상당부분을 설명하는 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 과거의 연구(Bettis 1981)도 R&D가 기업의 수익성과 正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R&D투자 자체가 핵심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R & D투자가 핵심기술화하려면 그러한 투자를 적절히 수행할 과학자나 기술자들이 그 기업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광고 역시 R&D와 마찬가지로 시장세분화, 제품차별화의 기회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광고로 제품차별화에 성공하면 진입장벽이 형성되며 따라서 기업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Mueller & Rogers 1980).

종업원의 평균임금은 그 기업의 일반적인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이다(Lall 1980). 개도국 MNC는 경영자와 기술자를 해외에 파견하여 기계를 직접 수리한다든가 경영관리를 능률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개발국 MNC에 대한 기술적 열세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높은 자본집약도는 대규모의 투자를 의미하므로 진입장벽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과거의 연구(Comanor & Wilson 1967)는 자본집약도가 기업의 초과이윤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임을 발견했다.

매출액규모는 규모의 경제에 대한 척도이며 규모의 경제는 기업의 영업성과를 높인다.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대부분은 아직도 조립공장형태이며 따라서 한국으로부터의 부품공급은 규모의 경제를 본사에서 해외사회사로 이전하는 수단이다.

과거의 연구(Johnson & Vahlne 1977)에 의하면 어느 기업도 과거에 수출한 경험이 없는 나라에서 생산을 시작한 예가 없다. 수출은 시장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감축하는 하나의 수단인 것

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시장에 대한 지식은 하나의 자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지식이 많을 수록 자원의 가치도 그만큼 커지며 초과이윤을 얻을 기회도 증가할 것이다.

산업성장율은 가동율 및 시장지분과 더불어 기업의 경영성과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들 중의 하나이다(Ravenscraft 1983). 산업의 성장율이 높으면 기업은 가격을 인하하거나 광고비를 늘리거나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신용판매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경쟁자로부터 시장지분을 빼앗아올 필요가 감소하므로 초과이윤을 얻을 가능성도 커진다. 본연구에서는 산업성장율을 두가지 방법으로 측정한다. 하나는 산업생산의 세계평균 연간성장율(일부의 경우에는 산업생산 대신에 부가가치를 사용함)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직접투자수입국의 연간평균 산업생산성장율이다. 성장율에 관한 자료는 Industry and Development Report와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에서 구한다. 산업성장율의 측정에 있어서 현지국의 산업생산성장율 이외에 세계평균성장율도 사용한 이유는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중의 일부는 현지시장 뿐아니라 세계시장에도 공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해외직접투자의 편익은 생산요소시장, 제품시장 또는 기술시장에 있어서의 不完全性, 또는 세분화에서 나온다(Collins 1990). 시장의 불완전성과 세분화는 비용을 절감하거나 시장진입을 쉽게 하는 이점을 가져올 수 있으며 기타 다른 특정한 경쟁우위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해외직접투자 이론은 이러한 편익을 개발국에서 발견할 수 있을지 개발도상국에서 발견할 수 있을 지에 관해서는 밝혀주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은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기업들이 그러한 경쟁상의 이점들을 개발국에서 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가정한다.

VI. 研究結果

본 연구에서 표본은 해외직접투자를 한 50개 제조기업의 해외자회사들중에서 1988년까지 설립된 82개 자회사들이다. 이중 1988년까지 자회사를 7개 설립한 회사의 수는 1개이며, 6개를 설립한 회사는 2개, 4개의 자회사와 3개의 자회사를 설립한 회사 역시 각각 2개이며, 2개의 자회사를 설립한 회사는 6개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 패키지는 SPSS/PC+이다.

<표 6-1>은 산업별 제조회사의 분포를 보여준다. 해외자회사 수가 많은 산업은 의류산업

(26개)과 전기기계 및 기구산업(13개)이며, 이들은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들이다.

<표 6-1> 표본자회사의 산업별 분류

산 업	자회사 數	%
식료품	3	4
섬유	5	6
의류	26	32
가죽	2	2
신발	2	2
제재	3	4
종이 및 종이제품	2	2
기타 화학제품	5	6
고무제품	2	2
플라스틱제품	2	2
기타 비금속제품	5	6
철강	3	4
기계	5	6
전기기계 및 기구	13	16
운송장비	3	4
스포츠용품	1	1
합계	82	99

주: 반올림 때문에 %의 합계가 100이 안됨.

<표 6-2>는 해외자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해 한국경영자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나타낸다.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3.39이며 이는 해외자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해 한국경영자들이 평균적으로 보통을 약간 넘는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6-2> 해외직접투자성과에 대한 만족도

점 수	1	2	3	4	5
회사의 수	3	12	25	34	8
%	3.6	14.6	30.5	41.5	9.8

주: 1; 매우불만 2; 약간불만 3; 보통 4; 약간만족 5; 매우만족

<표 6-3>은 상관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AD와 SR, SR과 WL, RD와 SZ, RD와 GR1, RD와 ER, SZ와 GR1, SZ와 ER, CI와 GR2는 높은 正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한편 CI와 WL은 높은 負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AD는 순매출에서 광고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SR은 종업원중에서 과학자와 기술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두 변수 모두 시장세분화와 제품차별화의 정도를 대표하는 지표이므로 높은 正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표 6-3> 상관계수

	AD	SR	RD	SZ	CI	WL	GR1	GR2	ER	DI	SA
AD	1.0000										
SR	.3593**	1.0000									
RD	.0673	.1957	1.0000								
SZ	.0465	.2944*	.3483*	1.0000							
CI	.0020	-.1090	.1269	.2114	1.0000						
WL	.0301	.3000*	-.1874	.1272	-.4384**	1.0000					
GR1	.1436	.2281	.5316**	.4302**	.0938	-.1060	1.0000				
GR2	.0580	-.0341	-.0295	.2791	.3835*	-.1924	.3096	1.0000			
ER	.0037	-.0389	.2938*	.4226**	.0687	-.0778	.1356	.0312	1.0000		
DI	-.1037	.0237	-.1219	-.0205	-.2605	.2307	-.0997	.1248	-.1939	1.0000	
SA	-.1739	-.1584	.1933	.1254	-.0808	.0178	-.0941	.1516	.1023	.3961**	1.0000

주 : *; P < .01

**; P < .001

WL은 종업원의 평균임금수준이며 WL과 SR간의 상관계수가 높은 正의 값을 가진다는 것은 종업원중에서 과학자와 기술자가 많은 기업의 평균임금수준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RD는 매출액에서 연구개발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SZ는 logarithm으로 측정된 기업의 매출규모이다. RD와 SZ의 높은 正의 상관관계는 대규모기업의 R&D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GR1은 産業生産의 세계 연간 평균성장율이다. RD와 GR1 역시 높은 正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기술집약도가 높으면 세계시장성장율도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ER은 기업이 한 나라에 직접 투자하기 전에 그 나라로 수출한 年數이며 RD와 ER간의 높은 正의 상관계수는 기술집약도와 수출전략간에 正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SZ와 GR1간의 높은 正의 상관계수는 産業生産의 세계연간평균성장율이 높은 제품과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규모간의 正의 상관관계를 시사한다. SZ와 ER간의 높은 正의 상관계수는 기업의 규모와 해외투자전의 수출경력간에는 높

은 正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CI는 매출액에 대한 자산의 비율이며 GR2는 현지국에 있어서의 산업생산의 연간평균성장율이다. CI와 GR2간의 높은 正의 상관계수는 현지국에서의 산업생산의 연간평균성장율이 높은 제품과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자본집약도간에 높은 正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나 이는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다. CI와 WL은 높은 負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이는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종업원중에서 과학자와 기술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표 6-3>은 상관관계분석이기 때문에 <표 6-3>으로부터 변수간의 因果關係를 끌어내서는 안될 것이다. 예컨대 CI와 WL간의 높은 負의 상관관계는 兩者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CI와 WL간의 높은 負의 상관관계는 앞의 해석과는 달리 종업원중에서 과학자와 기술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그 기업의 資本集約度는 낮은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앞에서 언급한 모든 상관관계에 그대로 적용된다.

<표 6-4>는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놓고 연구개발비수준(RD), 광고비지출수준(AD), 과학자와 기술자의 비율(SR), 평균임금(WL), 자본집약도(CI), 매출액규모(SZ), 輸出年數(ER), 연평균 세계생산증가율(GR1), 연평균 현지생산증가율(GR2), 그리고 개도국(DI)과 개발국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였을 때의 stepwise forward 회귀분석결과를 보여준다. Stepwise forward 방식을 사용한 이유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경영자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식별하기 위해서이다.

이 방식에 의하여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정확히 측정하려면 독립변수들 상호간에 다중공선성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표 6-3>의 相關關係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변수들 간에는 다중공선성이 발견된다. 따라서 엄밀히 얘기한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이 독립변수 상호간의 중요도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방법이 아니다. 그러나 변수들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는데 보다 더 적합한 방법은 아직 발견되지 못했으며 과거의 연구들도 이 방법을 사용하여 독립변수들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는 바 있다[Kim and Lyn 1986].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 방법을 최선은 아니지만 변수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표 6-4> 회귀분석결과

변 수	비표준화 계 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t 값 (유의수준)
D1	.90894	.25511	.43862	3.563 (.0009)
GR1	-2.48801	.83209	-.37384	-2.990 (.0046)
RD	18.71439	9.77741	.23050	1.914 (.0623)
GR2	1.42843	.85977	.20736	1.661 (.1039)
SR	-3.94238	2.48649	-.18663	-1.586 (.1202)

주 : $R^2 = .35257$

AD, WL, CI, SZ와 ER은 낮은 F값 때문에 방정식에서 제외됨
DI; 개발도상국

<표 6-4>는 독립변수들의 회귀係數, 회귀계수의 부호, 그리고 통계적 유의수준을 보여준다. DI(개도국 더미변수), GR2(현지생산증가율), RD(R&D 지출비율)는 우리가 예상한 바대로 正의 -의 부호를 가진다. 이 결과는 R&D활동을 통한 제품차별화가 해외투자성가에 正의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우리의 가정을 확인한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또한 한국기업들은 개도국에 투자할 때 요소시장, 제품시장, 기술시장에서의 불완전성을 이용한 경쟁우위를 향유함을 시사한다. 회귀 분석결과는 또한 높은 현지생산증가율이 해외투자성가에 正의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경우 회귀계수의 부호는 正이나 통계적으로 10%수준에서 유의하지는 못하다. SR(총 종업원중에서 과학자와 기술자가 차지하는 비율)과 GR1(세계생산증가율)의 회귀계수들의 부호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負이다. 그러나 SR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10%수준에서 유의하지 못하다.

GR1의 회귀계수는 負의 부호를 가지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이 결과는 세계적으로 성장율이 높은 산업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하이-텍산업임을 시사할지도 모른다(Doz 1980). 한국은 신흥공업국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이 투자한 해외회사들 역시 하이-텍산업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VII. 결 론

본 연구에서 우리는 한국기업의 경쟁우위가 해외직접투자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한국의 최고경영자들은 해외자회사의 영업성과에 대해 일반적으로 약간 만족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에 착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기업들이 목적인 바를 해외에서 어느정도 달성했다는 것을 의미할런지도 모른다. 回歸分析은 R&D집약적인 한국기업들이 해외에서 보다 성공적인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는 또한 현지생산증가율이 높은 開途國市場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보다 성공적인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세계생산증가율이 높은 산업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은 덜 성공적인 것 같다. 그 이유는 세계증가율이 높은 산업은 일반적으로 하이-텍산업이며 한국은 아직도 開途國의 일원이라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정부는 점증하는 무역장벽과 노무비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국제경쟁력약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를 지원해 왔다. 정부는 과거에 국제수지의 개선에 발맞추어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규정들을 자유화해왔다. 예컨대 해외투자금액이 U\$2백만불을 초과하지 않으면 투자기업은 관련기관에 보고만 하면 된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투자자도 해외투자를 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한 해외직접투자금융도 확대해 왔다. 최근에는 해외직접투자금융에 적용되는 期限과 條件들을 투자자들에게 보다 유리하게 개선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연구는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해외직접투자의 성공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연구의 결과는 개도국에 대한 투자와 R&D집약도가 해외투자의 성공에 중요하며 따라서 R&D집약적인 기업이 개도국의 생산요소시장, 제품시장 또는 기술시장에 있어서의 불완전성에서 오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이 해외직접투자성공의 요체임을 시사한다. 회귀분석결과는 또한 해외직접투자의 성공에는 독점적 자산의 소유보다는 투자대상국의 선정(개도국투자)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모든 평균은 결론을 오도할 수 있다. 본연구의 결과는 모든 R&D집약적인 기업들이 개도국의 현지생산증가율이 높은 산업에서 성공하리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기업들이 본연구에서 식별된 변수들을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에 성공하려면 먼저 현지에서 직면하게 될 상이한 환경, 관습, 문화, 법률, 규정, 세법 등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한국은행 외환관리부, 「해외투자통계연보」, 서울, 1991, p.40
2. Ansoff, I., *Corporate Strategy*, New York : McGraw Hill, 1985.
3. Bass, Frank M., "Profit and the A/S Ratio,"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Vol. 14, No. 6 (December 1974), pp.9-19.
4. Beard, Donald W. and Gregory G. Dess, "Corporate-level Strategy, Business-level Strategy, and Firm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24, 1981, pp.663-688.
5. Bettis, Richard A., "Performance Differences in Related and Unrelated Diversified Firm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2, 1981, pp.379-399.
6. Bilkey, Warren J., "Variables Associated with Export Profitability,"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Fall 1982), pp.39-54.
7. Buckley, P. J. and M. Casson, "International Corporations : The Industrial Economics of Foreign Investment," *Economica*, (February 1971), pp.1-27.
8. _____, *The Future of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Macmillan, 1976.
9. Buzzel, Robert D., Gale Bradeley & Ralph G. M. Sultan, "Market Share-A Key to Profitability," *Harvard Business Review*, (January-February 1975), pp.97-106.
10. Calvet, A. I., "A Synthesi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ories and Theories of the Multinational Firm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Spring/Summer 1981), pp.43-59.
11. Collins, J. Markham, "A Market Performance Comparison of U. S. Firms Active in Domestic,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Second Quarter 1990), pp.271-287.
12. Comanor, William S. and Thomas A. Wilson, "Advertising, Market Structure and Performanc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XLIX, (November 1967), pp.423-440.

13. Caves, R. E., "The Causes of Direct Investment : Foreign Firms' Shares in Canadian and UK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56, 1974, pp.279-293.
14. Christensen, H. Kurt and C. A. Montgomery, "Corporate Economic Performance : Diversification Strategy versus Market Structur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2, 1981, pp.327-343.
15. Daniel, J. D. and Juan Goyburo, "The Exporter-Non Exporter Interface : A Search for Variables," *Foreign Trade Review*, Vol. 2 (July-September 1976/77), pp.258-282.
16. Doz, Yves L., "Strategic Management in Multinational Companies," *Sloan Management Review*, (Winter 1980), pp.27-46.
17. Dunning, John H., "Trade Location of Economic Activity and the MNE; A Search for an Eclectic Approach," in B. Ohlin, et al. ed., *The International Allocation of Economic Activity*, London : MacMillan, 1977.
18. _____, "Explaining Changing Patterns of International Production; In Defense of Eclectic Theory,"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41, 1979, pp.269-295.
19. Gruber, William H., Dileep Mehta, and Raymond Vernon, "The R&D Factor in International Trade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of United States Industrie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5, No. 1 (February 1967).
20. Hirsh, S., *The Export Performance of Six Manufacturing Industries*, N. Y. : Praeger Publishing Co., 1971.
21. _____ and R. Barvch, "Sales Stabilization Through Export Diversifica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August 1971), pp.270-277.
22. _____ and Z. Adar, "Protected Markets and Firm's Export Distribution," *World Development*, Vol. 2, No. 8. (August 1974), pp.29-36.
23. Hood, Neil, and Stephen Young, *The Economics of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 Longman 1979.

24. Horst, T., "Firm and Industry Determinants of the Decision to Invest Abroad; an Empirical Stud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54 (August 1972), pp.258–266.
25. Hymer, 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National Firms," Ph. D. dissertatio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60.
26. IBRD, *World Development Report*,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27. Johanson Jan. and Jan-Erik. Vahlne, "The Internationalization Process of the Firm – A Model of Knowledge Development and Increasing Foreign Market Commitm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Spring/Summer 1977), pp.23–32.
28. Kim, Wi Saeng and Esmeralda O. Lyn, "Excess Market Value,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and Tobin's q-Ratio,"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Spring 1986), pp.119–125.
29. _____, "FDI Theories and the Performance of Foreign Multinationals Operating in the U. 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First Quarter 1990), pp.41–54.
30. Kindleberger, C. P.,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Cambridge, Mass, : MIT press, 1970.
31. Lall, S., "Monopolistic Advantages and Foreign Involvement by U. S. Manufacturing Industry," *Oxford Economic Papers*, Vol. 32, 1980, pp.102–122.
32. Lecraw, Donald J., "Performance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in Less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Spring/Summer 1983), pp.15–33.
33. Mueller, William F. and Richard T. Rogers, "The Role of Advertising in Changing Concentration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February 1980), pp.7–13.
34. Ravenscraft, David J., "Structure–Profit Relationships at the Line of Business and Industry Level,"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February 1982), pp.22

-31.

35. Rumelt, Richard P., *Strategy, Structure, and Economic Performance*, Division of Research,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rvard University, 1974.
36. _____, "Diversification Strategy and Profitabilit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3, 1982, pp. 350-369.
37. Sarathy, Ravi, "Japanese Trading Companies : Can They Be Copied,"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Summer 1985), pp.101-119.
38. Shoeffler, S., R. D. Buzzel, and D. F. Heany, "Impact of Strategic Planning on Profit Performance," *Harvard Business Review*, Vol. 52, No. 2(March-April 1974), pp.137-145.
39. The Bank of Korea, *Korean Investment Overseas*, Seoul, Korea, 1991.140. Tookey, D. A., "Factors Associated With Success in Exporting," *The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March 1964), pp.48-64.
41. U. N. Statistical Office,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 (June 1990).
42. UNIDO, *Industry and Development Global Report*, 1989/90.
43. Wong, V., J. Saunders and P. Doyle, "Japanese Marketing Strategies in the UK : A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Spring 1986), pp.27-46.
44. Wortzel, Heidi Vernon and Lawrence H. Wortzel, "Globalizing Strategies for Multinationals from Developing Countries,"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Spring 1988), pp.27-35.



附 錄

韓 國 經 營 學 會

定 款273

編輯方針277

「經營學研究」투고요령279



定 款

第一章 總 則

- 第1條(名稱) 本會는 韓國經營學會라 稱한다.
- 第2條(目的) 本會는 經營學과 이에 關聯되는 학문의 研究를 통하여 韓國經營學 發展에 寄與하며 會員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3條(事業)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
1. 經營學의 理論과 實務에 關聯된 研究
 2. 會報, 會誌 및 研究書籍의 刊行
 3. 研究發表會
 4. 本會와 目的을 같이 하는 國內外 諸學會와의 提携
 5. 前各號 以外에 本會의 目的 達成에 必要한 事業

第二章 會 員

- 第5條(會員) 本會의 會員은 本會의 目的에 贊同하는 者로서 正會員과 特別會員을 둔다.
- 第6條(正會員의 資格) 正會員은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者 中 入會節次를 畢 한 者로 한다.
1. 大學校 및 大學에서 經營學과 이에 關聯된 科目을 擔當하고 있는 博士過程以上인 者이거나 또는 經營學關聯 博士學位를 取得한 者
 2. 公認된 研究所에서 經營學分野에 從事하는 者
 3. 其他 理事會에서 이와 동등한 資格이 있다고 認定하는 者

第7條(特別會員) 特別會員은 常任理事會의 決議에 의하여 入會가 決定된 個人 또는 團體로 한다.

第8條(權利義務) 本會의 會員은 다음의 權利와 義務를 갖는다.

1. 本會의 모든 會員은 總會에 出席하여 討議에 參與할 수 있고 研究發表會 등의 本會事業에 參與할 수 있다.
2. 正會員은 選舉權 및 被選舉權을 가진다.
3. 會員은 所定の 會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9條(資格喪失) 本會員은 다음의 경우에 會員資格을 喪失한다.

1. 會費를 2年 以上 未納하였을 경우
2. 本會의 目的에 違背되거나 會員으로서의 品位를 損傷시키는 者로 理事會의 除名 決議가 있는 경우

第三章 任 員

第10條(任員) 本會에 다음 任員을 둔다.

會 長 1名 副會長 3名
理 事 80名以內 監 事 2名
 명예회장 약간명

第11條(會長·副會長 및 監事)

1. 會長과 監事는 總會에서 選任한다.
2. 副會長은 會長의 추천에 의하여 總會에서 選任한다.
3.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여 總會·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되며 會務를 統轄한다.
4.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 때에는 副會長中 年長者가 會長의 權

限을 代行한다.

5. 명예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第12條(會長選舉) 會長은 공천위원회나 會員 30名 以上の 추천을 받은 者로서 總會의 議決을 거쳐 選出된다.

1. 공천위원회는 現會長, 前會長, 前前會長 各 1名과 理事會에서 推薦된 4名으로 構成된다.
2. 會長은 공천위원회를 總會前에 召集하며 공천위원회는 차기 會長을 推薦한다.
3. 理事會에서 推薦되는 공천위원은 會報를 통하여 公告하며 任期는 2年으로 한다.
4. 理事會推薦 공천위원은 每年마다 1/2을 改選하여 連任할 수 있다.
5. 會員의 推薦에 의한 경우는 總會開催前에 事務局에 登錄하여야 한다.

第13條(理事·監事)

1. 理事는 會長團이 지명한다.
2. 理事는 會長·副會長을 補佐하고 理事會를 構成하여 會의 重要な 事項을 審議한다.
3. 理事中에서 常任理事10名을 두며 會長이 이를 委囑한다.
4. 監事는 會의 事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第14條(任期)

1. 任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한다.
2. 補闕로 選任되는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4章 機 關

第15條(總會)

1.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나눈

다.

2. 定期總會는 每年 2月에 開催되며, 臨時總會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 1) 會長이 必要하다고 인정할 때
- 2) 常任理事會의 議決이 있을 때
- 3) 會員 5分の 1以上の 書面으로서 開催事由를 명시하여 要請할 때

第16條(議決事項) 總會에서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定款의 變更
2. 決算 및 事業報告의 解任
3. 任員의 選任 및 解任
4. 會員의 權利·義務에 대한 規定
5. 會長 및 理事會가 附議한 事項에 대한 議決
6. 其他 重要事項

第17條(常任理事會) 常任理事會는 會長·副會長 및 常任理事會로 構成되며 必要에 의하여 會長이 召集한다.

第18條(協議와 議決事項) 常任理事會는 다음의 事項을 協議·議決한다.

1. 臨時總會의 召集
2. 特別會員 加入議決
3. 本會運營 및 業務에 관한 諮問
4. 各 支部에 대한 補助金 支給 決定
5. 其他 事項

第19條(理事會) 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 수시로 召集한다.

第20條(議決事項) 理事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1. 會員의 除名議決
2. 總會의 支出할 案件의 議決
3. 事業計劃 및 豫算의 承認
4. 投資 등 基金 管理에 관한 事項
5. 會員會費의 決定

6. 編輯委員會 構成과 規約의 承認·變更
7. 基金管理委員會 構成과 規約의 承認·變更
8. 總會에서 위임된 事項
9. 학회지 “經營學研究”의 편집정책의 중요한 변경사항
10. 공천위원의 推薦決議
11. 其他 事項

第21條(委員會)

1. 本會의 設立目的을 활발히 추진하고 支援하기 위하여 다음의 委員會를 設置할 수 있다.
 - 1) 本會 學術誌인 “經營學研究”편집 발행을 위한 編輯委員會.
 - 2) 本會의 基金을 증식하고 管理하기 위한 基金管理委員會.
 - 3) 本會의 發展을 위한 事業計劃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한 臨時 및 特別委員會.
2. 委員會의 委員長은 活動結果를 常任 理事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3. 編輯委員會와 基金管理委員會의 構成과 活動에 關하여는 本 定款 20條에 의하여 별도로 제정된 規則에 의한다.

第22條(議決方法)

1. 總會의 議決은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2. 理事會 및 常任理事會의 議決은 재적인원 過半數 以上の 出席과 出席人員 過半數以上으로 議決한다.

第五章 事 業

第23條(學會誌發刊) 本會는 學會誌 「經營學研究」를 年 2回 以上 發刊한다.

1. 發刊에 關한 決定 및 事務는 編輯委員會에서 行한다.
2. 編輯委員會 내규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制定·變更한다.

第24條(研究發表會) 本會는 年 3回 以上 研究發表會를 가진다. 研究發表에 關한 決定은 常任理事會에서 行한다.

第25條(其他事項) 本會의 本會目的에 關聯되는 定期·不定期의 各種事業을 行하며 이에 關한 決定은 常任理事會 및 理事會에서 決定하며 다음의 事業을 行할 수 있다.

1. 不定期研究發表會 開催
2. 基金管理和 關連된 投資事業
3. 產學協同講演會
4. 外國과의 研究交流事業

第六章 會 計

第26條(經費) 本會의 經費는 會員의 會費·入會金·贊助金·其他의 收入으로써 이를 充當한다.

第27條(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3月 1日부터 翌年 2月까지로 한다.

第28條(會費賦課徵收) 會費의 賦課 및 徵收方法은 理事會에서 定한다.

第29條(執行 및 結果報告)

1. 豫算 및 事業計劃의 執行權은 會長이 가진다.
2. 會長은 會計年度末에 一般會計 決算報告書와 基金管理 決算報告書를 作成하고 監事의 意見을 添附하여 總會에 報告하고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七章 事 務 局

第30條(事務局)

1. 本會의 事務를 管理하기 위하여 事務

局을 둔다.

2. 事務局에 事務局長과 職員을 둔다.
3. 事務局長은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會長이 任免한다.
4. 事務局長은 會議에 出席하여 意見を 陣述할 수 있다.
5. 事務局의 規定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이를 制定한다.

附 則

- ① 本 定款은 1970年 12月 6日부터 施行한다.

- ② 舊定款에 의하여 1970年 12月 5日 以前에 加入한 會員은 그 資格을 그 대로 認定한다.
- ③ 本 定款은 1983年 2月 26日부터 施行한다.
- ④ 本 定款은 1987年 5月 31日부터 施行한다.
- ⑤ 일주 變更된 本 定款은 1989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⑥ 本 定款은 1990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經營學研究」의 編輯方針

모든 學術論文誌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掲載되는 각 論文이 그 分野의 學術的 知識의 축척에 貢獻해야 한다는 점이다. 學術的 貢獻이란 (1) 그 分野의 새로운 問題點을 인식하고 있을 수 있는 解答을 제시하는 일, (2) 새로운 研究技法을 創案하여 既存問題를 해결하는데 적용하는 일, (3) 한 分野의 發展過程에 대한 史的 考察, 그리고 (4) 과거에 表明되었던 主張들을 比較分析하여 새로운 討議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 등을 말한다. 한편 知識은 立證되지 않은 主張에 의해서는 產出되지 않기 때문에 憶說로부터 論證을, 處勢로부터 合理的인 論說을, 些少한 것으로부터 本質을, 그리고 不完全한 技法으로부터 擁護할 수 있는 研究方法들을 區分하는 일이 學術誌가 해야 할 役割이다. 그 밖에 다른 學術誌와는 달리 學術誌는 會員들에게 폭넓은 學問討論에의 參與機會는 물론 그네들의 教育活動에 도움이 될 學術資料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임무를 지닌다.

위와 같은 諸事實을 염두해 두고 本 編輯委員會는 앞으로 學術誌를 다음과 같이 편집해 나갈 方針이다.

1. 投稿者는 原則적으로 韓國經營學會 會員에 限한다. 다만 會員과 共同研究者와 초청된 기고자는 例外로 한다.
2. 研究論文은 다른 刊行物에 發表되지 아니할 것이어야 한다.
3. 論文의 內容에 대한 責任은 집필자가 진다.
4. 論文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는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지고 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집필자에게 通報한다(심사위원의 이름은 비공개로 한다).
5. 이때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論文의 게재를 위하여 內容의 修正이나 補完을 집필자에게 要求할 수 있다.
6. 論文의 調査 및 게재결정의 基準은
 - ① 연구주제의 중요도(이론적·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 ② 연구방법의 타당성
 - ③ 내용의 창의성·검증성 및 응용
 - ④ 논문의 의사전달 효과
 - ⑤ 기타 편집기술상의 요건에 부합되는 여부 등이다.
7. 紙面은 研究論文, 研究노트 및 通信欄으로 區分될 수 있다.
經營學의 諸 分野의 지식에 學問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論文은 研究論文欄에 會長의 教育活動에 도움이 될 학습자료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研究物이나 기존 研究에 대한 비평이나 코멘트 등은 연구노트欄에 게재한다. 그리고 통신란은 會員들에게 學問討論에의 參與機會를 제공하는 자리로 이용한다.
8. 論文의 게재 우선순서는 편집위원회가 論文을 接受한 날이 빠른 순서를 原則으로 하고 편집

위원회가 論文의 重要性和 獨創性을 감안하여 이를 調整할 수 있다.

9. 「經營學研究」에 게재된 論文의 版權은 經營學會가 所有한다.

「經營學研究」投稿案内

「經營學研究」편집위원회는 별도의 原稿마감일을 두지 않기로 決定하였습니다.

會員께서는 언제든지 投稿하실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原稿가 接受된 후 바로 檢査를 始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豫定된 發行시기까지 審査와 修正·補完이 完了된 論文에 限하여 該當號에 掲載될 것입니다.

지금은 第22券 第1號부터 掲載될 原稿를 모으고 있습니다. 投稿하시는 原稿를 다음 住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낼곳 : 121-742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1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이우용 교수연구실

※ 우편 이용시 반드시 등기로 보내주십시오.

「經營學原稿」 투고 요령

1. 原稿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로 提出한다.
2. 原稿는 3부씩 提出한다(原本 1部 포함).
3. 原稿의 접수일은 原稿가 본 회에 到着한 날로 한다.
4. 原稿는 국문 또는 國漢文 혼용으로 한다.
5. 原稿는 圖表를 포함하여 國文의 경우 200자 원고지에 橫書하여 150매 이내로 한다(原稿를 워드프로세싱 또는 타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1×28cm(A4용지)에 한줄건너(double spacing)타자하여 50매 이내로 한다).
6. 原稿 제1면에는 국문 및 영문으로 원고제목, 투고자의 성명 및 소속을 명기하고 원고매수를 표시한다.
7. 原稿 제2면부터 本文에 들어가기에 앞서 논문초록과 目次를 표시한다.
8. 章, 節의 표시는
 - I.
 - 1.1
 - 1.1.1
 - .
 - .
 - .
 과 같이 한다.
9. 學術用語는 될 수 있는 대로 國文으로 쓰되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영문으로 쓸 수 있으며 번역된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문 부서를 붙일 수 있다.
10. 모든 표 및 그림은 백지에 선명하게 그리고 해당번호(예: <표 1-1>, <그림 3-2>)와 題目 또는 說明을 붙여야 한다.
11. 각주(footnote)는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꼭 必要한 경우에만 작성한다.
12. 각주(footnote)는 語句의 오른쪽 상단에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고 그 내용은 원고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原稿가 끝난 직후의 면부터 作成하고 워드프로세싱이나 타자를 한 경우에는 各面 下段에 作成할 수 있다.
13. 必要한 경우 고딕체는 下線()으로 이태리체는 點下線()으로 각각 表示한다.
14. 참고문헌은 그 全部를 著者名에 따라 國文은 가나다順으로, 英文은 ABC順으로 번호를 붙여 本文이 끝난 뒤에 기재하고, 本文中 참고문헌이 引用된 部分에는 []속에 해당 참고문헌 引用된 部分에는 []속에 해당 참고문헌 番號를 明示한다. (例: [4,21])
15. 참고문헌은 定期刊行物의 경우는 著者名, 論文題目, 刊行物名(이태리체로 表示), 권(Vol), 호(No), 年度, 面(page)의 順으로, 定期刊行物이 아닌 경우는 著者名, 圖書名(이태리체로 表示), 出版回數(2판 이상), 卷(2권 이상), 出版地, 出版社名, 出版年度의 順

으로 기재한다. 다만, 出版年度는 著者名의 바로 뒤에 ()속에 記入할 수 있다.

例)

1. Salop, S. C., "Monopolistic Competition with Outside Goods", *Bell Journal Economics*, Vol. 10, No. 1(Spring 1979), pp. 141~156.
 2. Davis, Gordon B. and Margrethe H. Ols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Conceptual Foundations, Structure, and Deveklopment*, 2nd ed., New York: McGraw Hill, 1985.
 3. 김수곤, 「임금과 노사관계」,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78.
16. 投稿된 原稿는 반환하지 아니한다.